

띄어쓰기

(1) 의존 명사 vs 조사

의존 명사와 조사의 형태가 같을 때 띄어쓰기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의존 명사는 띄어서 써야 하고 조사는 체언에 붙여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존 명사는 항상 관형어 뒤에 온다. 따라서 용언의 관형사형(-ㄴ, -ㄹ) 뒤에서는 띄어 주고, 체언 뒤에서는 붙여주면 되는 것이다.

- 대로 예 느낀대로 설명해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 뿐 예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믿을 것은 실력뿐이다.
- 만 예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하루 종일 잠만 잤다. 파도가 칩채만 하다
- 만큼 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하나의 예외만 추가하자면 '만'이 체언 뒤에 오지만 의존 명사인 경우가 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될 듯하다. '시간, 거리, 횟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써야 한다.

예 십년만의 귀국. 두 시간만에 떠났다. 걷기 시작하지 1km만에 힘이 빠졌다. 세 번만에 시험에 합격했다.

#65 2013년 3월 고3

<보기>의 설명에 따라 학습지를 푼 결과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가) 한글 맞춤법 규정

-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었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2) 의존 명사 vs 어미

겉으로 보기에는 형태가 같아서 띄어 써야 하는지 붙여 써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어미와 의존 명사가 존재한다. 이들은 '의존 명사 vs 조사'보다 구분이 까다로운데, 어미에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같은 '-ㄴ, -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의미'로 구분해야 한다.

- 의존 명사 '지'(시간과 함께 쓰임) vs 어미 '-(ㄴ)ㄴ지, -(으)ㄹ지'(그 외)

예 그가 떠난지 3년이 지났다. 너는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른다.

- 의존 명사 '게'('것'의 의미) vs 어미 '-(으)ㄹ게'(그 외)

예 할게 많아?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 의존 명사 '바'(그 외) vs 어미 '-(ㄴ)ㄴ바'(뒤에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해 관련된 상황을 미리 제시)

예 느낀바가 무엇이나?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바 그에 따를 뿐이다.

• 의존 명사 '데'(뒤에 조사 결합 가능) vs 어미 '-(느)ㄴ데'(그 외)

예) 의지할V데(가) 없는 사람, 자동차를 수리하는V데(에) 필요한 공구. 책을 다 읽는V데(에)3일 걸렸다.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라

• 의존 명사 'دت이(=دت)' vs 어미 '-دت이(=دت)' vs 보조 용언(보조형용사) 'دت하다'

→ 이것은 앞의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다. 관형어 뒤에 결합했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어간 뒤 결합했으면 어미이므로 어간과 붙여 쓴다. 'دت하다'는 의존 명사 'دت'과 용언 '하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보조 용언이다. 어쨌든 'دت하다'의 'دت'도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잘 모르겠다는Vدت이 눈만 깜빡인다(=잘 모르겠다는Vدت 눈만 깜빡인다). - 의존 명사

떨Vدت이 기쁘하다(=떨Vدت 기쁘하다). - 의존 명사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밥 먹듯 한다). - 어미

↳ 이 때의 '-دت 하다'는 보조 용언이 아니라 어미 '-دت'과 용언 '하다'가 우연히 나란히 온 결과이다. 당연히 어간 '먹-' 뒤에 결합되었으므로 '-دت'이 어미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비가 올 듯하다. - 의존 명사 'دت'과 '하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 'دت하다'

(3) 접사 vs 의존 명사

• 들

'들'이 복수를 의미할 때에는 접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쓰지만, 사물을 나열할 때에는 '등'과 같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예) 사람들이 공원에 많다. - 접사

예) 쌀, 보리, 콩, 조, 기장V들을 오곡이라 한다. - 의존 명사

(4)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본용언과 본용언이 이어져 있을 때에는 무조건 띄어 쓰지만(예)종이를 휴지통에 찢어V버렸다). 그러나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어질 경우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원칙	허용
불이 꺼져V간다.	불이 꺼져간다.
어머니를 도와V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얼굴이 늙어V간다.	얼굴이 늙어간다.
고난을 이겨V내다.	고난을 이겨내다

그러나 보조용언의 앞에 오는 본용언이 합성 용언이거나 중간에 조사가 들어오면 보조용언을 띄어서 써야 한다.

원칙	허용	
강물에 떠내려가V버렸다.	X (떠내려가다: 합성 용언)	
네가 덤벼들어V보아라	X (덤벼들다: 합성 용언)	
잘도 놀아만V나는구나	X (보조사 '만' 들어감)	잘도 놀아나는구나 (O)
책을 읽어도V보고	X (보조사 '도' 들어감)	책을 읽어보고 (O)

위와 같은 보조용언은 별로 어렵지 않다. 조금 헷갈리는 것이 '의존명사+하다, 싶다'의 결합으로 보조 형용사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양하다, 척하다, 체하다, 만하다, 법하다, 듯하다, 성싶다' 등은 모두 의존명사 '양, 척, 체, 만, 법, 듯, 성'에 '하다, 싶다'가 결합된 보조 용언이다. 이들도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본용언과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비가 올V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V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비가 올V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V척하다.	잘 아는척하다.

역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보조 용언을 띄어서 써야 하는데, 이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양하다, 척하다 ……' 등은

조사가 보조용언을 분리시키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용언V의존명사V하다, 싶다'로 띄어쓰기가 2번 일어난다. 예시를 보자.

원칙	허용
비가 올V듯도V하다	X (보조사 '도' 들어감)
잘난V체를V한다.	X (조사 '를' 들어감)
그는 믿을V만은V하다.	X (보조사 '은' 들어감)
버스를 놓칠V뻔도V하였다.	X (보조사 '도' 들어감)

☺참고 - '만하다', '듯하다'의 띄어쓰기

다른 것보다 유독 '만하다, 듯하다'가 헛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 너도 그럴V만하다. - 여기에서의 '만'은 의존 명사로, '만하다'는 의존 명사 '만'과 용언 '하다'의 결합으로 구성된 보조 용언이다. 보조 용언이므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예 너도 그럴만하다)
- 파도가 집채만V하다. - 여기에서의 '만'은 보조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뒤의 '하다'는 우연히 나열된 전체 문장의 서술어이다. '파도가 집채V만하다'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문제가 조금 어려운V듯하다. - 여기에서의 '듯'은 의존 명사로, '듯하다'는 의존 명사 '듯'과 용언 '하다'의 결합으로 구성된 보조 용언이다. 보조용언이므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예 문제가 조금 어려운듯하다)
- 거짓말을 밥 먹듯V하다. - 여기에서의 '-듯'은 어미이므로 어간과 붙여 써야 한다. 뒤의 '하다'는 우연히 나열된 전체 문장의 서술어이다. '거짓말을 밥 먹듯하다'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6 2015년 10월 고3

<보기>의 설명에 따라 학습지를 푼 결과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도와드리다'의 경우 '드리다'가 보조 용언이니까 '도와 드리다'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와드리다'도 허용하는 것이지요. 그럼 선생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학습지

* 다음은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이다. 띄어쓰기에 맞는 표현을 모두 찾아 ○표 하시오.

- 활활 타던 불이 ~~꺼져 갔다~~ / ~~꺼져갔다~~. ... ①
- 의자를 뒤로 ~~밀어내 버렸다~~ / ~~밀어내버렸다~~. ... ②
- 네가 그 일에 ~~덤벼들어 보아라~~ / ~~덤벼들어보아라~~. ... ③
- 책을 여러 번 ~~읽어도 보았다~~ / ~~읽어도보았다~~. ... ④
- 공책에 ~~기록해 두었다~~ / ~~기록해두었다~~. ... ⑤